



누군가의 기록방식, TATTOO

타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건 바로 가수 요조(Yozoh)이다. 타투와 그녀를 연관 짓게 된 건, 2009년 서울예대 학보에 실린 ‘빛나는 오늘의 발견, 빛나는 오늘의 나’ 때문일 것이다. —전문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그 글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요조의 동생에 대한 이야기다. 요조는 동생의 죽음 이후에 내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동생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의 죽음으로부터 요조가 배운 것은, 오늘에 충실한 삶이라고 했다. “당신의 오늘이 행복하길 바란다. 당신의 내일 같은 건 관심도 없다.” 로 끝나는 바로 그 글이 나는 참 좋았다. 저 글을 읽고 나서 요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됐는데, 요조가 한 타투들이 동생에 관한 것들이라는 기사 글을 접하게 됐다. 요조의 타투는 동생을 기록하는 방식이자 동생을 기억하는 방식인 것이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타투가 하고 싶었다. 그러나 큰 의미를 두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소중한 것을 몸에 새긴다는 것, 그것을 영원히 안고 가야 한다는 것마저 매력적이었다. 언젠가 내 몸에 그림을, 혹은 글씨를 새기게 된다면 아주 예쁘고 소중한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몸에 ‘새길만한 무언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날에는 그냥 꽃을 그릴까, 어떤 날에는 그냥 내 글씨를 새길까 하다가도 나는 망설였다. 내 몸에 처음으로 새기게 되는 것에는 큰 의미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즈음. 아주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 나는 우울함을 떨치는 방법으로 종종 글을 쓰곤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견디기가 힘들었다. 나한테는 새로운 게 필요했다. 기분이 나쁠 때 미용실을 갔던 것처럼, 기분 전환을 위한 무언가. 그때 나는 요조를 떠올렸다. 망설이

지 말자. 내일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오늘의 나를 위해서 타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도안을 짜기 시작했다. 나는 보통 우울을 물로 비유하곤 했는데, 그래서 물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도안으로 그리기로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해서. 정말 신기한 건 도안을 그릴 때 5분 남짓 걸렸다는 사실이다. 마치, 내가 원래 상상하고 있던 그림이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완성된 첫 타투

재미있는 건 이 타투를 한 당일에 심리학을 전공한 언니를 만났다. 그 언니는 내 타투를 보더니 질문을 던졌다. 그 날의 대화는 내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인영아 그거 무슨 의미인지 물어도 돼?

그냥 물속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의미야. 다짐 같은 거

아직 못 빠져나왔나보다

노력하는 중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동그라미가 아니잖아.

응?

마름모잖아. 각진 곳에 갇혀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물속에서 빠져나와도 너는 여전히 갇혀 있을 것 같은데? 손가락도, 가리키고 있는 게 있네. 그게 뭐야?

내가 그린 이 그림에는, 나도 모르는 의미가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그때 당시의 나는 아직 힘든 일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언니의 해석이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영원히 이 사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이 조금 더 담겨 있던 도안이었던지도 모른다. 나를 살리려고 그린 도안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그림이 되었다는 게 나를 싱숭생숭하게 만들었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었다. 우울한 마음을 이끌고 집에 가는 길에 예전에 다이어리에 쓴 글을 발견했다.

어느 글 모임이 끝나고, 모임장 언니가 정말 좋은 술집이 있다며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 사장님은 문예창작과를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술도 좋아해서 와인가게를 차리게 되셨다고 했다. 그 분 팔에는 여러 가지 타투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으레 그렇듯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었다. 한쪽 팔에는 좋아하는 것들을 새기고, 반대편 팔에는 싫어하는 것들을 새겼다고 하셨다. 좋아하는 것들을 몸에 새긴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싫어하는 것을 새긴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을 왜 새기게 됐는지 물었다.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보면 익숙해진단다. 어떤 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날이 오기도 한다고. 혹은 보면서 다짐하게 된다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장님이 반짝 반짝 빛이 난다고 생각했다는 글이었다.

그 다이어리를 읽으면서 나는 또 한 번 생각했다. 내 타투가 불안 때문에 새겨졌든, 희망 때문에 새겨졌든 그건 큰 의미가 아니라고.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몸에 무언가를 새겼다는 것 자체가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요조가 자신의 타투를 통해 동생을 기억하듯이, 모 술집 사장님이 자신의 타투를 보며 삶의 방향을 다짐하듯이. 나 또한 내 타투를 보면서 그날의 내 모습을 떠올린다. 가장 아픈 시절의 나를. 먼 훗날의 나는 내 타투를 보면서 인영아, 그런 시절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구나 할지도 모른다. 혹은 인영아, 그 때도 잘 이겼으니 이번에도 잘 견딜 수 있을거야 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타투를 할지 말지 머뭇거리고 있다면 나는 추천하고 싶다. 생각보다 별 것 아니고, 생각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지도 모른다. 다만 안전하게, 소독된 니들 혹은 일회용 니들을 사용하는 곳으로 가서 하길 바란다. 또, 지워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신중한 고민 후에 결정하라. 당신이 진짜 기록하고 싶은 만한 것을 예쁘게 새기기를. 그리고 미성년자는 조금만 더 기다리자.

타투, 누군가에게는 기록의 방식이다. 당신의 첫 타투는 무엇을 기록했는지 궁금하다. 혹은 당신이 언젠가 하게 될 첫 번째 타투에는 무엇을 담게 될지도 기대가 된다.